

도의회 하반기 의장단 표결 가능성

전북도의회 10대 하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임이 표결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6일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국민의당 소속 의장단, 상임위원장 배정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비례성을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면서 "일부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는 21일 의원총회에 앞서 20일 긴급 의총을 열고 최종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소속 의원 간 입장차 커

를 지을 방침"이라며 "지난 16일 의원총회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아무래도 표결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1명, 예결위원장 1명(1년 기한) 등 최소 3명의 의장, 상임위원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제1부의장은 조병서 의원(부안2)이, 제2부의장은

강영수 의원(전주4)이 거론되면서 국민의당과의 부의장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상임위원장 역시 특별히 한 자리를 배분하기가 쉽지 않는 등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민의당 소속 도의원들은 "더민주당이 표결을 하자고 한다면 표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광영 기자

이성일 도의원(군산4)은 "국민의당은 당직이 필요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을 선택한 도민들의 판단을 존중해달라는 것이다. 원활한 도정을 이끌 수 있도록 협치를 구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8명이고 국민의당은 8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30%가 넘는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표결로 간다면 8명 의원 모두 지더라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 출마 하겠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미복귀 전교조 교사 해직은 구시대적 법리"

양용모 도의원 유감 표명

전북도의회 양용모 도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내고 미복귀 전교조 교사 해직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양 의원은 "미복귀 전교조 교사 해직 결정은 정권의 전교조 탄압과 법원의 구시대적인 법리에 전북교육청이 두손을 들어버린 꼴이라 깊은 유감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해직은 당사자 개인과 가족에게는 회복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고립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라며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정권의 압력에 굴복하는 모습과 해직이라는 무서운 현실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관련 교사 해직에 동조한 전북교육청은 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반성과 사과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신광영 기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전주-완주 상생 폐기 비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전주시의회와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폐기 움직임을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전주-완주 상생사업을 철회하는 조례개정안을 본 의회에 상정, 전주와 완주의 상생협력사업이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전주시의회 상생협력 사업 폐기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관련 조례는 '전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시가 이미 지난 3월 전주월드컵경기장 완주군민 할인혜택을 없앤 뒤라 전주시의회 조례 개정으로 전주와 완주의 상생협력사업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김영재 기자



기업(氣UP) 관·학·연 대표 간담회

전주시는 지난 17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강신재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과 현대인 전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팀장, 양근의 캠퍼스융합기술원장, 최충찬 전자부품연구원 전북지역본부장,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강봉용 한국생신기술연구원 전북본부장, 박용근 전북대 산학협력단장, 김진수 전주대 산학협력단장, 장진수 비전대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氣UP) 관·학·연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연보호 전주시(완산·덕진)협의회 관계자는 "가시박 제거사업은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앞으로도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생태계교란 외래생물 퇴치를 위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이번 퇴치행사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지속적으로 가시박 제거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로를 따라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기자

민·관 합동 전주천 가시박 제거 온힘

환경단체 · 시민 등 참가

전주시가 전주천 주변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외래생물인 '가시박' 제거를 위해 팔소매를 걷어붙였다.

시는 17일 환경단체와 주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가시박 퇴치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큰입배스 등 전주지역에 확산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위해성을 시민

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식물계의 '홍소개구리'라 불리는 가시박은 주변 수목과 농작물을 감고 올라 식물체를 고사시키는 등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외래생물로, 지난 2009년 환경부로부터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0년대 후반 안동지방에서 오이 등의 재배를 위한 대목으로 사용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했으며,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부터 하천을 따라 급격하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재 기자

고창 고인돌탐방 열차 '매력'

고창 고인돌 유적지가 모로모로 열차(고인돌탐방 열차)와 국내 유일의 고인돌박물관 등으로 한층 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2000년 12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고창 고인돌유적지는 총 6코스로 구성돼 있다. 앞서 도와 고창군은 이 유적지를 노약자, 어린이들도 편리

하게 즐길 수 있도록 고인돌탐방열차를 설치해 지난 2009년부터 운행해왔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1코스부터 6코스까지 편안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개관한 고인돌박물관 또한 놓칠 수 없는 볼거리이다.

이 박물관은 지난 2011년 세계적인 가이드북 '미슐랭 그린가이드'에 한국 명소로 소개되면서 국내·외, 특히 유럽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영수 기자

중·자전거 동호인 전북 찾는다

제이엘연합 국제여행사 사전 답사 전주 한옥마을 · 군산 금강변 점검

중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대거 전북도를 찾아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금강변을 아름다움을 자전거 라이딩과 함께 탄막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중국 자전거 동호회를 대상으로 관광 상품 판매를 추진 중인 '제이엘 연합국제여행사'가 전북도를 찾아 전주 한옥마을 및 군산 금강변 자전거길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사전점검에 나섰다.

'제이엘 연합국제여행사'의 이번 관광 상품은 중국 허베이성(하북, 河北) 친황다오(친황도)에서 출발해 인천 공항으로 주3회 운행하는 전세계 상품으로 회당 185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방문할 예정이다.

이 상품의 한국 체류 일정은 5박 6일이고 이 중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금강변 자전거길 라이딩 등을 위해 전북에 1박 2일간 머물게 된다.

또한 이 상품은 금강변 자전거 탐방이 가능한 가을 시즌까지만 판매되며, 중국 자전거 동호인들을 주축으로 약 1,300명이 전북을 관광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영수 기자

이 같이 한옥마을과 군산 금강변 자전거길이 연계된 관광상품은 한옥마을의 꾸준한 인기와 더불어 지난 4월 중국 산동성 자전거 동호회원 53명이 전북을 방문한 것이 출발이 됐다.

이를 통해 이번엔 전세계 상품에 포함됨으로써 군산 금강변 자전거길이 새로운 중국인 관광객 유치 관광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제이엘연합 국제여행사의 신혜란 이사는 "전주 한옥마을은 한국·한복·한식 등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짧은 시간 안에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며, 군산 금강변 자전거 길은 금강의 빼어난 경치를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곳"이라며 "맑은 공기, 깨끗한 자연에 대한 욕구가 강한 중국인들에게 최적의 여행 장소"라고 평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와 군산을 연계한 관광코스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전북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체류 비율을 높여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